

2024년 03월 10일 11주간

제24-11호
목장성경공부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02 2613-2080 . 2683-2080

FAX 02 2689-1230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제 11 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성경말씀	시편 8편 1~9절(구약p.807) 창세기 1장 27~28절(구약p.1)
암송구절	시편 8편 5절(구약p.807)
찬 송	찬송가 21(통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송가 79(통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본 문 이 해

시편 8편은 온 세계를 만드시고 사람으로 그 세계를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특히 1절과 9절은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고 아름답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언제나 생각하시며 돌보시는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되게 하실 정도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6~8절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셨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에 실현해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 속으로

1. “그를 생각하시며”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시편 8편 4절

-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두신다는 의미입니다.

보충설명

창조 앞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이렇게 광대한 우주에 비해 사람은 작고 먼지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두시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관심 한가운데에 있는 영예를 누리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의 물줄기는 계속되어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2.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시편 8편 5절

-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사 소중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보충설명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시고 높여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인 사람을 하나님의 위치와 비슷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이나 이웃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3.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시편 8편 5~9절

-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 7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 8절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 이 땅을 통치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보충설명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대한 통지권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다스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때 다스림은 착취나 남용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생태계의 파괴와 기후의 변화가 극심한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묵상 이야기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작고 빠르면서도 더욱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교한 컴퓨터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두뇌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복잡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뛰어난 성능의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것을 대가 없이 은혜로 제공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시편 8편의 고백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통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나눔

-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기도

-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나와 이웃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적용

-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결단합니다.